

# 중국 번역뉴스의 가독성 적용에 관한 고찰\*

강수정\*\*

## <目 次>

1. 서론
2. 중국번역뉴스의 장르적 특성
3. 중국번역뉴스를 이해하는 몇 가지 관점
  - 1) 텍스트 유형분류
  - 2) 기능주의적 접근
  - 3) 이데올로기적 접근
4. 번역뉴스의 가독성 적용
5. 나오는 말

## 1. 서론

번역학은 번역 현상을 연구하는 신생 학문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한 문화적·사회적 그리고 언어학적 요인과 관계를 연구하고 기술하여 보다 완전한 번역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원리를 찾는 학문<sup>1)</sup>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 문화사회에서 가치 있는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의미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거나 아예 다른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번역현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번역연구의 중심이 '언어'에서 '문화'로 옮겨오게 된다. 낭만주의 문학전통에 기반하여 현대번역학의 기원을 설명하는 슈넬혼비(Mary Snell-Hornby)는 번역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는 데 있어 1970년대의 화용론적 전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번역학의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3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중문학부 조교수

1) 유명우,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집(창간호), 2000.

기본적인 특징을 규정하는 데 주도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980년대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sup>2)</sup>이라고 하고 있다. 이 '문화적 전환'은 번역연구를 '텍스트로서의 번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한편, 연구의 초점을 원문(Source Text)에서 번역문(Target Text)으로 그 중심을 이동시켜 놓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번역연구에서 번역문 중심적인 접근이 의미하는 것은 원문 텍스트가 더 이상 번역의 최우선적 기준이 아니라, 번역자가 이용하는 다양한 정보원 중의 하나일 뿐<sup>3)</sup> 번역의 성공여부에는 번역문을 받아들이는 독자들이 번역문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정도가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원문의 언어적 특징이 아니라 '번역 문화권'에서 그 번역문이 갖는 기능에 따라 번역어권의 독자들이 가장 수용하기 좋은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으로 번역학에 등장한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이라 하겠다. 이 전환을 대표하는 기능주의적 접근<sup>4)</sup>은 번역을 하나의 의사소통 행위로 보고, 그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규범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번역의 성공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이 목적하는 기대와 충족은 번역문이 목표문화권에 제대로 기능해야한다는 것인데, 번역연구의 이러한 시각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중국매체에서 보도되는 번역뉴스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뉴스를 전달하는 텍스트인 뉴스 보도문은 뉴스라는 형식에 포함된 정보를 목표 문화권인 중국어 문화권에 가장 '가독성' 높게 전달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뉴스를 시청하는 중국 수용자들이 계층이나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등이 불특정하여 그 수용 정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이에 중국매체들은 뉴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짧고 간결한 문장의 사용<sup>5)</sup>을 요구

2) Mary Snell-Hornby, 허지운 外 옮김, 《번역학발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 85쪽.

3) Christiane Nord, 정연일 주진국 옮김, 《번역행위의 목적성-기능주의 번역론의 관점》,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43쪽.

4) 그리스어의 '목적'을 의미하는 스키포스(skopos)로 대변되는 기능주의는 먼저 번역문의 목적인 스키포스를 결정하고 난 후, 원문을 분석하고 적절한 번역전략을 찾아낸다.

5) 孟慧东 (2012). 〈浅谈电视新闻语言〉. 《黑河学报》. 2012年3月, 34-35쪽.

한다. 그러나 중국이 아닌 외국의 통신사나 뉴스매체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번역과정에서 문장 길이의 차이로 인한 정보 불일치의 어려움<sup>6)</sup>을 겪게 된다. 즉 외신 뉴스문을 번역하여 보도하다보면, 원문이 지니는 정보의 양을 중국어권의 매체로 그대로 옮기기에 시간(방송)이나 지면(신문)의 제약으로 수용자의 '가독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의 매체에서는 뉴스가 지니는 가치만을 보존한 채, 수용자의 이해를 위해 원문 텍스트에 일정한 변형을 주게 되는데, 특히 중국매체에서 이러한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중국 매체에서는 특파원이 직접 취재한 국제뉴스 보다 해외 매체의 뉴스를 번역하여 보도하는 번역뉴스가 상당히 활성화<sup>7)</sup> 되어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도입 이후 채널이 급속하게 늘어났으나, 관리와 제작상의 문제로 직접 취재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번역방송을 선호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이렇게 번역뉴스 사례가 풍부한 중에서도 한국의 뉴스가 중국어로 번역되는 사례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내 외신번역 일간지인 '참고소식(參考消息)'을 기준으로 1993년 년 간 9회에 불과했던 한국뉴스가 2007년의 경우 연간 169회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sup>8)</sup> CCTV 뉴스채널의 경우 국제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관련 보도는 일종의 메이저 뉴스가 되고 있다.<sup>9)</sup>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의 번역뉴스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개념을 찾고자 한다. 사실, 뉴스를 설명하는데 있어 오랜 기간 다양한 방식의 저널리즘적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특히 뉴스제작과 관련해서는 뉴스를 선택하는데 있어 기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게이트키퍼링(GateKeeping)이론<sup>10)</sup>이 상당부분

6) 吕宁.〈新闻编译中的“选择”——以《参考消息》的一篇报道为例〉.《新闻记者》.2006(10), 57쪽.

7) 魏涛.〈长话短说与短话长说——浅析英语电视新闻编译〉.《中国翻译》27(5), 2006.

8) 이혜군.〈국가 간의 국제뉴스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석사논문, 2010.

9) 강수정.〈방송뉴스 번역양상에 관한 연구〉.《통번역학연구》17권 1호, 2013, 3쪽.

10) 미디어가 사건과 현상을 보도 할 때, 관문(게이트키퍼링)적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기자가 뉴스를 선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조직적, 환경적 요인을 다양한 함수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해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저널리즘적인 접근은 뉴스의 선택과정에서 조직에서 기자의 역할을 설명할 뿐, 뉴스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언어적, 문화적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중국매체의 한국 관련 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의 관련 연구 역시 중국언론이 사회주의이론이라는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방송에 대한 전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방송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절대화해서 번역뉴스에 대입시킬 경우, 번역뉴스를 둘러싸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중국매체를 둘러싼 환경은 정치권력의 지속화라는 과제를 갖고 있는 중국공산당과 산업적 발전과 이윤을 추구하는 방송종사자, 그리고 양자의 입장을 공유하는 정부라는 삼자 간의 긴장과 갈등관계 속에서 방송이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외신뉴스를 둘러싸고서도 다양한 번역 참여자간 상호작용이라는 제도적 맥락이 중국번역뉴스를 규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번역환경은 과거의 읽고 쓰는 텍스트 중심의 평면적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환경, 즉 방송이나 영화 등의 영상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중간 문화적 흐름을 반영하여,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대중문화(드라마와 영화)가 중국매체 속에서 번역되는 양상에 관한 연구들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이 한류의 산업적 성장흐름에 따라 그 성과를 축적한 반면, 방송매체 특히 뉴스텍스트의 전환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의제설정과 언어적 활용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문화적 전환에서도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매체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기초적 논의에서 더 이상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번역뉴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번역학 기반의 이론적 접근과 설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뉴스가 번역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춘 번역학적 결정요인과 설명 가능한 개념적 접근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중국번역뉴스의 장르적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번역뉴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번역학 패러다임의 ‘문화적 전환’에 기인한 번역문 중심적 접근에서는 각 문화권 마다 번역에 대한 뚜렷한 관습이 있고, 이러한 관습을 바탕으로 번역권의 독자가 번역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므로 번역가는 타당한 이유 없이 독자들과의 관습이나 규범에 반하는 번역행위로 독자를 기만하거나 현혹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sup>11)</sup> 즉 특정 텍스트에 대한 적합성 판단여부는 번역되는 문화권에서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번역의 ‘장르적 관습(genre convention)’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장르적 관습’은 한 사회의 의사소통행위가 표준화되는 결과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특정한 종류의 텍스트가 특정상황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반복하여 사용된다 보면 이들 텍스트는 참고서, 조리법, 사용설명서, 기도문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의 지위를 얻게 된다.<sup>12)</sup> 따라서 번역에 있어 번역물이 목표 문화에 잘 수용되려면 번역가들이 목표언어의 장르적 규범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세부적인 분야의 장르가 모여서 하나의 텍스트 유형을 형성한다고도 볼 수 있다.

중국번역뉴스의 가장 큰 장르적 특징은 뉴스라는 속성에 있으며, 뉴스의 기능은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에 있다. 뉴스보도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보의 전달에 적합한 형태의 관습적 구조를 위해 중요한 사실이 서두에 요약된 후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형태로 역피라미드 형태의 기사가 대다수로 간결한 문체적 특징<sup>13)</sup>을 지닌다. 이는 독자들이 기사전체를 읽지 않고 리드만 읽고서도 전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중국 역시 역피라미드형 뉴스문장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이나 해외 뉴스의 경우 사건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닌 심층취재나 기획기사의 경우 피라미드형을 채택하거나, 기자의

11) Christiane Nord, 정연일 주진국 옮김, 91쪽.

12) Jeremy Munday, 정연일 남원준 옮김, 《번역학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99쪽.

13) 한국언론재단, 《한미 신문의 기사 형식과 내용 비교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7, 7쪽.

논점에 따라 혼합적으로 쓸 수 있지만, 중국은 역피라미드형 문장을 고수한다. 장웨이<sup>14)</sup>의 경우 '뉴스는 역피라미드형 구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뉴스가치가 높은 내용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원칙에서 벗어난 국제뉴스 원문 단락을 아예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힌다. 결론적으로 뉴스라는 장르의 핵심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중국매체들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글쓰기는 물론이고 역피라미드형이라는 문장구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뉴스가 객관성, 정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신화적' 믿음과 현실 속의 뉴스의 진행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뉴스의 글쓰기가 객관적이고 간결한 형태를 띠기는 하지만, 뉴스가 구성되는 과정은 현실을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보다 미디어 종사자와 미디어 조직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라 경험적으로 형성된 프레임(frame)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sup>15)</sup>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도를 위해 뉴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내의 게이트키퍼가 일어나고, 나아가 이데올로기적 요인에 의해서 뉴스가치가 조정되기도 하는데, 이는 국내의 외신을 인용한 뉴스에서도 각 매체가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경향에 따라 번역뉴스의 보도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것을 언론보도의 논조나 편집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관점을 선택하여 세상을 들여다보는 독자도 있겠으며,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일정한 조정을 왜곡이나 오보<sup>16)</sup>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경험한 많은 사례들과 연구들<sup>17)</sup>에서 뉴스가 지니는 장르적 특징으로 번역뉴스에서 원문기사에 대한 일정한 조정을 필수적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국가적 이익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이든, 미디어조직 내 편성이나 편집의 방향성이든, 뉴스가 지니는 장르적 관습 혹은 문화적 이해에 기

14)张伟.〈国际新闻编译策略的实际应用〉.《今日南国》133, 2009, 144쪽.

15)원용진,《텔레비전 비평론》,한울아카데미, 2005, 239쪽.

16)정연일,〈국내 외신보도 오보논란의 번역교육학적 함의〉,《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8(1), 2004.

17)박소영(2007), 강지혜(2008), 이주리에(2011)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데, 주로 번역 뉴스에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을 적용하여 매체별로 이데올로기적 특징에 따른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

반한 가독성의 문제이든, 드러나 보이는 현상으로는 이들 번역뉴스들이 뉴스의 가치만 지닌 채 번역되어 보도되면서, 번역어권에 맞게 재구성되는 장르적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해당 연구들은 뉴스의 특징이 뉴스번역의 특징을 만든다고 보고 있다. 즉, 원문뉴스와 마찬가지로 번역된 뉴스 역시 사회적으로 재구성된 정보의 전달로 보고, 그 정보전달의 커뮤니케이션적인 기능이 강하게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매체들이 뉴스를 번역할 때, 외국어와 중국어의 정보 전환의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번역문이 원문의 내용과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해 내기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독자를 위해 원문에 일정한 조정을 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편역(編譯)이라 칭하고 있다. 뉴스편역이란 독자 혹은 번역문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 번역자가 일정 정도 원문의 내용과 형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원어뉴스에 번역과 편집의 수단을 사용해 번역, 가공, 종합하여 번역어로 표현해 내는 뉴스의 번역방법이다.<sup>18)</sup> 중국의 뉴스기사가 독자층을 한정하기 어려워져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이 읽을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뉴스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원문의 내용을 일정하게 변형시킨다는 것이다. 뉴스편역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뉴스와 가독성에 관한 문제임으로 중국매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양한 언어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비엘사와 바스넷<sup>19)</sup>(Bielsa & Bassnet)의 경우는 뉴스번역과 뉴스편역을 아예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편역을 독자 혹은 번역문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번역자가 일정 정도 원문의 내용과 형식을 변화시켜 재구성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번역뉴스의 핵심적인 장르적 특성으로 인정하며 기존의 논의들에 접근하고자 한다. 신문과 방송뉴스는 편역적 맥락에서 원문보존이 힘들다는 것이고, 원문의 텍스트는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번역된 뉴스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하고 입증하는 주요한 개념으로 본고에서는 편역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를 중국번역뉴스

18) 刘其中. 《新闻翻译教程》.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4, 6쪽.

19) Bielsa, Esperanca and Susan Bassnett, 《Translation in Global News》, NewYork: Routledge, 2009.

의 이론적 전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 3. 중국번역뉴스를 이해하는 몇 가지 관점

중국번역뉴스가 번역의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이들 번역뉴스가 원문의 변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뉴스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번역문이 원문뉴스와는 다르게 개작되거나 종합되어 특정한 경우에는 원문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뉴스가 생산되기도 한다는 것이 핵심적 논지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 뉴스를 번역하는 행위에는 문화번역이나 상업적 번역과는 다르게 번역사에게 원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데, 중국매체에서 뉴스를 번역한다는 것에는 번역사로서의 역할, 기자로서의 역할이 상호작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내·외적 상호작용 속에서 원문뉴스가 변형되는 요인을 번역학의 몇 가지 이론적 접근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관점들이 중국뉴스번역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 1) 텍스트 유형분류와 중국뉴스번역

번역에서 텍스트의 유형을 고려한 논의는 특정 텍스트가 지니는 소통적 기능을 파악하여 그에 맞도록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스(Katharina Reiss)는 페르메르(Hans J. Vermeer)와 공동저술한 '일반통번역이론의 기초'<sup>20)</sup>에서 번역텍스트의 유형(text typology)을 정보적(informative), 표현적(expressive), 작용적(operative) 텍스트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기능적 특징에 따라 번역방법을 달리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라이스는 뉴스 텍스트의 경우 원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어로 전달되기를 기대한 바, 설명서나 해설서 같이 정보적 텍스트로 분류하

20) Katharina Reiss & Hans J. Vermeer, 정혜연 외 옮김, 《일반 통번역이론의 기초》,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고, 원문의 내용인 객관적 사실이 번역어권 독자에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평이한 산문체 번역을 추천하였다. 필요에 따라 설명을 명시화 할 수도 있다.

기능주의 전통에 기반한 노드(Christiane Nord)의 경우는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적 번역(Documentary Translation)과 도구적 번역(Instrumental Translation)을 제시하며, 신문기사의 인용을 기록적 번역으로 분류하여 단어와 단어가 그대로 연결되어 번역되는 이른바 축어적(word-for-word) 번역을 권장한 바 있다.<sup>21)</sup> 물론 Nord의 경우 뉴스기사 중의 인용문에 제한하여 축어적 번역을 언급한 것이나, 라이스와 마찬가지로 뉴스텍스트의 핵심적 가치를 객관성과 정확성에 두고 그에 따른 번역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뉴마크(Peter Newmark)의 경우 번역의 종류를 소통중심적(Communicative) 번역과 의미중심적(Semantic) 번역으로 나누어 설명<sup>22)</sup>하고 있는데, 소통중심적 번역은 원문텍스트가 원문의 독자에게 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번역문의 독자들에게 일으키고자 함이고, 의미중심적 번역이라면, 최소한의 통사적 의미적 범위 내에서 원문저자의 문체와 문맥을 정확히 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번역뉴스의 경우 소통중심적 번역으로 텍스트 전반적인 의미전달에 관심이 있게 된다. 뉴마크의 분류는 번역문의 기능에 대한 분류라기보다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법에 가까워, 중국의 번역학자들은 뉴마크의 번역분류에 르페브르(Andre Lefevere)와 베누티(Lawrence Venuti)의 자국화·이국화 번역전략<sup>23)</sup>을 대입해서 뉴스를 번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송징(宋靜)<sup>24)</sup>은 번역문의 수용자인 중국인들이 번역뉴스에 관심을 갖는 대상

21) Christiane Nord, 정연일 주진국 옮김, 위의 책, 81쪽.

22) Mary Snell-Hornby, 허지운 外 옮김, 위의 책, 97쪽.

23) 자국화 번역은 번역문에 드러나 있는 외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고 유창한 번역을 하는 반면 이국화는 이국의 문화적 차이가 받아들여지게 하여 독자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번역전략을 일컫는다.

24) 宋靜, 〈文本功能与新闻英语翻译中的归化异化〉, 《湖南科技学院学报》, 第30卷 第9期, 2009年 9月, 160-163쪽.

은 뉴스 자체이지 원작자의 글쓰기 스타일 아니어서, 번역뉴스의 수용가능성과 정보적 기능의 확보를 위해 번역자는 정확하게 원문뉴스의 정보를 전달한다는 전제 하에서 중국인 수용자들의 사고방식이나 독해습관 등에 부합하는 표현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언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국화 전략을 채택하고, 문화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번역문 수용자의 해당 문화에 이해 정도를 근거로 자국화와 이국화를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자원보(賈文波)<sup>25)</sup>는 문학과 같은 표현적 텍스트들은 원문의 개성을 드러내는 '이국화'번역을 해야 하지만, 정보적 텍스트인 뉴스는 정보의 내용이 중요하고 언어형식은 부차적인 것으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자국화번역을 해서 독자의 이해와 수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독자들과 높은 독자들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공통어(common language)'를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국내에서 이은숙<sup>26)</sup>은 슈넬혼비(Snell-Hornby)의 텍스트 분류에 따라 번역뉴스가 의사소통적(Communicative) 기능과 정보적 기능(Informative)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확성과 객관성에 더불어 소통적 언어기술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라이스와 이은숙의 차이는 시대의 미디어환경 발전에 따른 뉴스기능의 변화로 인한 차이로 볼 수 있겠지만, 텍스트유형분류에 따라 뉴스 텍스트가 정보적 유형으로 분류되어 원문을 재생하는 번역방식의 설명력이 제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의 연구들 역시 이러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모든 편지의 유형이 러브레터가 아니듯이, 모든 뉴스기사가 정보제공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문텍스트 자체는 정보 전달이라는 기능을 하지만, 텍스트 내부적으로 호소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이 혼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연구자들이 텍스트의 기능과 유형에 따라 번역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번역뉴스를 두고 절대적으로 기능과 유형의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는 잘 인식하고 있다. 번역뉴스 뿐만 아니라, 현대적 텍스트들의 유형이 한 가지 특성으로만 규정된 것이 아닌 여러 가지가 섞인 혼합형 텍스트가 많기 때문이다<sup>27)</sup>.

25) 賈文波, 〈文本类型的翻译策略导向—异化, 归化讨论后的思考〉, 《上海科技翻译》, 2004年第3期, 6~11쪽.

26) 이은숙, 〈전문번역전략에 대한 연구-TV뉴스 번역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2011.

## 2) 기능주의적 뉴스편역

중국에서 뉴스를 구독, 시청하는 수용자들을 각 계층이나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으로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뉴스가 수용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문제 역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때문에 상기한 것처럼 중국매체들은 수용자들의 뉴스이해도 높이기 위해서 짧고 간결한 문장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의 통신사나 뉴스매체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번역과정에서 문장길이의 차이로 인한 정보 불일치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정보전환의 차이는 수용자들의 가독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매체들은 원문에 대한 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런 뉴스의 번역행위를 '편역(編譯)'이라 하여 뉴스번역의 주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다. 중국매체의 '편역'은 번역문인 뉴스가 중국 내에서 얼마나 수용가능한 형태로 작성되는가의 목적(Skopos)이 중요한 바, 번역문 지향적인 기능주의적 접근에 기반하여 원문의 내용과 형식을 변화시키는 편집의 과정<sup>28)</sup>을 거치게 된다. 1차적으로는 원문과 중국어의 언어구조가 다른데서 오는 언어적 정보의 조정, 2차적으로는 문화적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조정, 마지막으로 뉴스 자체가 이데올로기의 조정인 관계로 번역과정에서 정치적 시각의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sup>29)</sup>는 의미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sup>30)</sup>, 중국의 이해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회·문화의 연성뉴스(soft news)의 경우, 중국 연구자들이 제시한 기능주의적 편역이 이루어진 번역뉴스로 보이나, 이는 전체 뉴스의 20% 수준인 반면, 정치·외교 등 경성뉴스(hard news)의 경우, 중국의 입장과 가치를 추가해 새로운 뉴스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같은 원천뉴스라 할지라도 그것이 연성인가, 경성인

27) 현대적 텍스트가 혼합적이고 복합적 양상을 보여 번역텍스트의 유형분류의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텍스트유형 분류는 번역을 학습하는 이들에게 번역에 대한 초기적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28) 刘其中, 《新闻翻译教程》.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4, 6쪽.

29) 陈明瑶, 〈浅论英语新闻编译加工〉. 《中国翻译》 22(5), 33쪽.

30) 강수정, 〈방송뉴스 번역양상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17(1), 2013.

가, 혹은 자국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에 따라 뉴스 결과물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원문뉴스가 중국어로 번역되는 행위는 가치중립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번역뉴스가 방송되는 과정에서는 저널리즘적 가치판단의 영역이 개입된다는 것인데, 중국의 뉴스편역이 기능주의로 설명되기보다 뉴스가 지니는 저널리즘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더욱 그 설명력을 갖는 이유이다. 결국 중국방송에서 번역뉴스에 기능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범위를 매체의 저널리즘적 이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편집단계로 한정하여 볼 필요가 있다.

### 3) 이데올로기로 본 번역뉴스

뉴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뉴스의 내용적 특징을 결정하는 어떤 '구조적 결정 요인'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 한다.<sup>31)</sup> 뉴스를 단순히 사건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수용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왕동평(王東風)<sup>32)</sup>에 따르면 중국매체의 번역자는 다른 지역의 문화와 언어가 내포하는 개념을 자국문화로 끌어오면서 필연적으로 타 지역으로부터 온 문화가 갖는 가치관에 대해 자신의 가치판단을 하게 되고, 이를 전달할 전략 - 직접 전달할지 아니면 의미를 완곡하게 전달할지, 군데군데 삭제하고 전달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지 등을 선택하게 된다. 뉴스가 편역되는 현상이 중국사회에 기반한 이데올로기 현상이라는 것이다.

중국매체에서 이데올로기의 작용으로 많이 논의 되는 지점은 어휘 선택과 관련된 논의가 많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 관련 보도에서 미국 AP통신은 '침략'의 의미가 있는 'invasion'이라는 단어를 기피하였으며, 홍콩의 중국반환 관련 보도에서는 영국에 빼앗겼던 영토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return to China'라고 해야 함에도 'revert to China'<sup>33)</sup>라고 썼다는 등이다.<sup>34)</sup>

31) 이준용,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29호, 2002, 94쪽.

32) 王东风, <一只看不见的手—论意识形态对翻译实践的操纵>, 《中国翻译》, 2003(5), 17쪽.

33) 영어사전에서 revert는 증여하거나 주었던 재산이 증여자와 수여자 간의 협의한 법적 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자나 그 상속자에게 반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34) 朱刚, <词语政治—一个赛义德后殖民个案分析>, 《外国文学》, 2002(4), 65-71쪽.

장샤오화(蔣驍華)<sup>35)</sup>는 나아가 이데올로기가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7가지로 정리한 바 있는데, 1) 번역이 정치를 위해 봉사하게 한다. 2) 번역자의 소재선택에 영향을 준다. 3) 번역자가 독자의 이데올로기에 최대한 부합하게 한다. 4) 번역자의 원문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준다. 5) 사회윤리에 끌려가게 한다. 6) 목표 언어권 독자의 심미적 습관에 끌려가게 한다. 7) 페미니즘 번역이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거의 모든 번역행위에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고 말한다.

번역뉴스를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권력이 뉴스언어와 상호적 관계를 맺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뉴스보도에서의 표현과 어휘선택의 미묘한 차이는 다른 관점과 입장과 태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더라도,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따르면, 번역뉴스에서 번역가는 목적의식을 갖고 선택적으로 뉴스 소재를 선택하고, 원문에 대한 추가, 삭제, 조정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재현하거나 강화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목소리는 묻어버리기도 하고 원문 내용에 대한 취사선택과 조정을 통해 중국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국의 연구가 주로 영어권에서 중국을 대하는 모습에 대한 이데올로기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때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특히 구체적인 방법보다 이데올로기를 선언적으로 강조하는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번역뉴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의 또 다른 방향은 주로 번역의 프레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주로 국내의 연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의 번역뉴스연구<sup>36)</sup>는 매체별로 같은 원문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스텍스트는 서로 다른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섭의 결과물로서, 이 교섭의 결과물인 번역뉴스텍스트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와 원문뉴스에 구성된 정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반다이크(van Dijk)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담론구조 분석 프레임을 활용하여 뉴스담론의 의미론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번역

35) 蔣驍華, 〈意识形态对翻译的影响: 阐发与新思考〉, 《中国翻译》, 2003, 24-29쪽.

36) 박소영(2007), 송연석(2011), 김기영(2013)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

된 뉴스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번역뉴스의 프레임 분석은 주로 정치사회적 이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준웅<sup>37)</sup>은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특정 이슈에 대한 언론의 정치적 의미구성을 탐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 연구방법은 정치사회적 이슈에 한정된 접근일 뿐더러, 방법의 목적이 뉴스의 가치와 보도의 입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번역뉴스가 놓여 있는 저널리즘과 번역학의 학제적 교차로에서 보면 뉴스의 가치를 주로 연구하는 저널리즘적 입장에서 번역뉴스를 바라보는 것이라 하겠다. 저널리즘에서는 뉴스가치(News Value)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뉴스가치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게이트키퍼링(Gatekeeping) 연구로 이어지는데, 저널리스트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사회제도적 차원의 다양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함수적으로 파악하게 된다.<sup>38)</sup> 번역뉴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게이트키퍼링이라는 실증적 요인에 덧붙여 뉴스가치에 관한 연구로 저널리즘적 요소가 강하다고 하겠다. 번역뉴스연구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 정호정<sup>39)</sup>은 뉴스번역이 최종 번역텍스트의 완성과정에서 다른 번역과 달리 편집자나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저널리즘적 요인의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

#### 4. 번역뉴스의 가독성 적용

매체환경에서 뉴스의 번역현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뉴스의 가치라는 저널리즘적 측면보다, 뉴스가 번역되어 소통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서의 뉴스번역이라는 것은 원문의 뉴스가 번역되는

37) 이준웅, 위의 논문.

38) 박천일, <방송의 국제뉴스 선정과정과 통제 매커니즘 비교분석>, 《언론과 사회》 7호, 1995, 71쪽.

39) 정호정, <번역학 전문학술지의 발달과 최근 연구동향>, 《통역과 번역》 15권 1호, 2013, 252쪽.

과정에서 뉴스의 가치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이트 키퍼링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와는 별개로 작동하는 번역현상으로, 핵심적으로는 정보전달을 위한 ‘가독성(readability)’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번역뉴스가 생성되는 과정은 ‘뉴스원작자-뉴스원문텍스트-번역자-번역텍스트-독자’로 전달되는 일종의 시스템이라 볼 수 있는데, 문학적 감성의 전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학번역의 경우 원작자의 의도가 번역독자에게 원문독자들이 느끼는 감동을 똑같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의 경우, 원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텍스트가 포함하는 정보가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이때의 번역자는 정보전달 시스템 상에서 번역뉴스텍스트의 ‘가독성(readability)’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가독성은 충실성(faithfulness)과 함께 번역비평에 자주 활용되는데, 이은숙<sup>40)</sup>은 충실성을 ‘원문의 형태에 충실한 번역으로 가능한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을 하되, 원문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만 의미에 충실한 번역을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일종의 이국적 번역으로 문체적 등가에 주력하는 것이다. 정보전달을 핵심적 기능으로 의미전달을 쉽게 해야 하는 번역뉴스에는 보다 자연스럽고 쉽게 읽히는 가독성에 초점을 맞추어진 번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독성을 좀 더 분명하게 보충하는 개념으로는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을 들 수 있다. 번역이 출발어 규범과 도착어 규범 중 어느 것을 따를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착어 규범을 지향하는 경우 ‘수용가능성’이 높은 번역이 되고 ‘가독성’을 고려한 번역물이 생산된다. 편역의 경우 번역문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송연석<sup>41)</sup>은 실제 번역에서 수용가능성의 양극단 사이에서 타협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편역은 극단적 수용가능성의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가독성의 개념을 번역현상에 적용한 실증적 연구로는 김한식<sup>42)</sup>의 ‘이해용이성’

40) 이은숙, <문학번역 평가의 문제: 충실성과 가독성>, 《통역과 번역》 10(2), 2008, 84쪽.

41) 송연석, <뉴스번역의 번역규범-텍스트 규범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권 5호, 2012.

42) 김한식, <보도문의 이해용이성에 관한 고찰>,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9집, 2005.

에 대한 개념화가 있다. 그는 가독성(readability)을 이해용이성(readability)으로 칭했는데, 가독성을 음성과 발화된 내용도 함께 다룬다는 의미에서 이해용이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응답자들의 주관적 답변에 따라 번역뉴스의 'readability'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뉴스번역의 문장구성이 알기 쉬운 표현과 간결한 문장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서술하도록 하면 이해용이성이 제고된다고 파악했다. 나아가 정확한 발음과 악센트, 적절한 속도 등 음성적 측면도 중요하며, 설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표현이 길어져 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많이 설명하면 전체적으로 이해용이성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중국의 양쉐련(楊雪蓮)<sup>43)</sup>의 경우는 커뮤니케이션학에 기반해 기호학적인 가독성에 초점을 맞추어 단어, 문장, 행, 단락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도문에서는 상용어휘의 사용, 동작동사의 사용, 장문지양 단문사용, 복문금지, 문장행간 문제 등을 기준으로 번역어권 독자의 원문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젠(張健)<sup>44)</sup>은 영어뉴스의 헤드라인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기본적으로 직역을 하고 부연설명을 추가한 어휘를 사용하며, 원문의 수사적 특성을 살리고, 수사학적 차이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의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실 가독성은 응용언어학의 주요한 영역 중의 하나로,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보다 간결하고 적용하기 쉬운 '가독성 공식'을 찾는데 치중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객관적인 음절수리든가 단어수 같은 수치적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sup>45)</sup>이 있지만, 국내에서 번역뉴스에 가독성 연구를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중국의 학자들은 번역뉴스에 가독성을 적용하는데 적합한 유형이나 하위요소를 제시하기보다 번역의 지침에 관련된 논의가 많아서, 번역뉴스에 적용가능한 가독성 유형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최근 비엘사와 바스넷(Bielsa & Bassnet)<sup>46)</sup>이 뉴스번역은 개념자체

43) 楊雪蓮, 〈傳播學視角下的外宣翻譯〉, 上海外國語大學博士學位論文, 2010, 74-80쪽.

44) 張健, 〈英語新聞標題的漢譯〉, 中國翻譯, 1997(1), 41-42쪽.

45) 장민호, 〈영화번역에서 텍스트 축소와 메시지의 변화〉, 《국제회의 통역과번역》 9(1), 2007, 8쪽.

46) Bielsa, Esperanca and Susan Bassnett, 위의 책.

가 뉴스번역이라고 주장하며, 뉴스번역을 위해 번역자에게 요구되는 텍스트 개입의 유형을 언급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가독성 적용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의 논의에 덧붙여 기존 중국의 가독성 논의에 기반하여 중국번역뉴스 현상에 적용가능한 가독성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엘사와 바스넷이 제시하고 있는 가독성 적용 유형은 표제와 리드의 변형, 불필요한 정보의 제거, 주요배경정보의 추가, 단락순서의 변경, 정보요약의 5가지 유형이다. 이 중 표제와 리드의 변형을 제외하면 번역뉴스 본문에 적용가능한 유형은 축소-삭제-추가-문장구조변경의 4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 1) 원문의 축소

먼저 가독성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의 축소라고 할 수 있다. 가독성 공식을 적용한 연구<sup>47)</sup>들에서는 무엇보다 어휘의 음절수가 적고, 어휘가 짧아야 가독성이 좋아진다고 보는데, 이것이 번역에 시사하는 바는 원문의 정보량이 많은 경우 번역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번역사가 여러 개의 쉽고 짧은 단어로 번역해야함을 의미한다. 번역뉴스에서 축소는 가독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면이나 화면의 제약으로 인해 독자들에게 관련 없는 정보를 줄여나가는 방식의 필요성으로 이야기 될 수도 있다.

‘축소’의 대표적인 사례는 숨어있는 함의를 단순화시켜 드러내는 외연화(explicitation)라고 할 수 있다. 장민호에 따르면, 함의는 화자가 언어라는 껍데기를 통해 진실로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 〈사례1〉

원 문) 어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싸이의 무료공연은 한 마디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번역문) 昨天晚上, Psy在首爾市政府廣場前舉辦了免費演唱會, 盛況空前。

47) 대표적으로 장민호, 위의 연구, 8쪽.

원문인 한국 뉴스를 중국에서 번역해 보도하면서 [열광의 도가니]가 갖는 의미를 단순화시켜 [공전의 성황]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열광의 도가니’를 ‘演唱會氣氛爆棚’ 등으로 보다 의미를 살려주거나 ‘獲得了現場粉絲的瘋狂吶喊’ 등과 같이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나 문장이 길어지며 가독성에 장애가 될 수 있어, 번역문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단순화 시켜서 축소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연화가 반드시 축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서, 역으로 정보의 확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사례2〉

원 문) 자리 바뀔 中·日의 구호외교

번역문) 救災外交反映中日國力變化

(구호외교가 중·일의 국력변화를 반영해주고 있다)

[자리 바뀔 中·日의 구호외교]라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느낌의 헤드라인이 중국에서는 [救災外交反映中日國力變化(구호외교가 중·일의 국력변화를 반영해주고 있다)]로 보다 직설적이며 내용을 압축하여 담고 있는 문장으로 변경되었다. 이렇듯 외연화 양상은 축소와 확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축소의 또 다른 사례는 번역문에 상응하는 대응어가 없을 때, 혹은 대응어가 있더라도 뉴스에서 사용할 만큼 보편적이지 않아 가독성에 지장이 초래될 때, 보다 상위 의미장(semantic field)으로 대체하는 번역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사례3〉

원 문) 요즘 젊은 여성들 서클렌즈라고도 불리는 컬러 소프트렌즈 많이 착용하시죠. 크고 아름다운 눈동자로 보이기 위해서인데요

번역문) 彩色隱形眼鏡受到了很多女性的歡迎。

(컬러렌즈가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 원문의 [서클렌즈라고도 불리는 컬러소프트렌즈]라는 구체적이고 긴 형태의 하위명사를 그대로 쓰기보다 [컬러렌즈]라는 일반명사를 사용하여 정보를 축소한 사례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반적인 정보를 구체화하여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4〉

원 문) 中 전인대 증시 혼풍 될까

번역문) 韓股市期待中國兩會給力 (한국 증시 중국 양회에 기대)

兩會는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를 말한다. 한국신문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전국인민대표대회만을 대표로 축약, 지목해 보도했으나 중국에서는 이를 일반화하여 번역하였다.

위에서는 원문 한국뉴스가 중국어뉴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축소'현상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축소되는 사례로 외연화, 구체화, 일반화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축소현상을 설명하였다.

## 2) 원문의 삭제

중국번역뉴스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삭제'하는 경우는 중국어권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어 설명이 필요 없거나, 원어권에 비해 지리적, 문화적으로 동떨어져 있어 구태여 상세하게 언급할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사례5〉

원 문) 작년 10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중국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번역문) 中國政府“十二五”規劃的核心內容是，中國經濟以內需爲主。

중국에서 축약해서 '12·5'라고 불리는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국인들

에게는 이미 너무나 익숙하여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원문 뉴스에 들어있는 부연설명 부분을 삭제한 사례이다.

〈사례6〉

원 문) 북한 해주·개성지역서 GPS 교란전파 발사

번역문) 韓衛星導航系統遭朝鮮干預 (한국 GPS 북한의 교란 받아)

북한의 지명인 해주와 개성지역은 한국독자외는 달리 중국 신문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하거나 부차적인 정보로 그대로 번역했을 때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다.

한편, 중국번역뉴스에서는 사회안정과 안보에 해당하거나, 외교적으로 부정적인 소재의 경우에 대해 광범위한 삭제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사례7〉

원 문) 중국에선 현재 정부와 노동자 양 방향에서 임금인상 압력이 분출하는 상황이다. 작년 혼다자동차, 폭스콘 공장의 분규처럼 농민공들은 파업뿐만이 아니라 자살이란 극단적 방법으로 의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중국내 30개 성(省), 시(市), 자치구(自治區)는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최저임금을 평균 24% 인상했다. 내수확대와 임금인상은 한국과 일본 역시 현재 중국과 비슷한 경제발전단계에서 경험한 과정이다. 일본은 1960년 이케다 하야토 내각이 사회적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성장과 완전 고용을 통한 '소득배증(倍增)계획'을 실시해 두터운 중산층을 만드는 데 성공을 거둔 일이 있다. 한국은 1988년 올림픽 이후 노동운동이란 진통을 거치면서 근로자 임금의 급속한 상승을 경험했다. 일본과 한국 모두 그 기간 동안 산업구조가 크게 변했고, 이후 경제는 안정성장 또는 저(低)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중국 산업구조 역시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번역문) 目前, 企業面臨來自中國政府和工人雙方的漲薪壓力。中國30个省、市和自治區從去年5月開始到9月, 平均漲薪幅度達24%。

中國的產業結構也從“勞動密集型”迅速轉向“技術密集型”。

위의 사례에서는 한국어 원문의 밑줄 친 부분인 내용의 대부분이 통으로 삭제되었다. 이는 중국에서 말하는 소위 ‘민감한 문제’로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남기고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파업,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정에 ‘부정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한 것을 볼 수 있다.

삭제의 양상은 번역뉴스에서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인 한국어권에서는 유익한 정보였으나 중국어권에서는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들이 많고, 단순수치에서 구체적 정보를 담은 문장까지 가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삭제현상들을 볼 수 있다.

### 3) 원문의 추가

‘축소’와 ‘삭제’같이 정보의 양을 줄이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과 반대로 ‘추가’의 형태로도 가독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중국번역뉴스에서는 중국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지식에 대한 간략한 부연설명을 하거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화소의 설명이나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의 ‘추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8〉

원 문) 판소리 ‘수궁가’.

번역문) 一首韓國傳統說唱藝術盤索里的著名曲目“水宮歌”

(한국의 전통 소리에술인 판소리의 유명한 곡인 수궁가)

〈사례9〉

원 문) ‘강남스타일’이 미국 대선판에까지 등장했습니다.

번역문) 在全球備受追捧的《江南style》竟然又登上了美國大選的舞台。

(‘전세계의 사랑 받고 있는’ 강남스타일.)

‘삭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입장이 강조되어야 하는 지점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사례10〉

원 문) 없음

번역문) 外交部商部25日就“上海門”事件表示, 從聯合調查組接到調查結果后, 政府將依法嚴厲追究相關人員的責任, 以懲一儆百。

(외교통상부는 25일 공동조사단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해 정부는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번역뉴스의 경우는 원문에 없는 내용이며, 이미 총리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번역해 실은 기사에 충분히 다루어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락을 사용해 추가로 외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복하여 신고 있다. 이는 앞에서 많은 부분의 삭제례를 통해 해당 사건이 스파이 사건이 아닌 공직기강해이 사건임을 강조했던 중국의 맥락을 다시 한 번 강화해 주고 있다.

원문 정보를 확대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는 사건에 대한 해설과 부연설명을 위해서 원문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어의 추가나 문장의 삽입이 이루어진다. 정치적인 논점이 필요할 경우는 원문의 정보를 변형시키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문장이나 단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 4) 문장 구조의 변화

한국어와 중국어는 문장구조가 확연히 달라 부분적인 문장구성으로 가독성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한국 기획기사의 경우 피라미드형태의 문장구조를 띄고 있어, 역피라미드 형태를 강조하는 중국매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자신들의 장르적 관습에 맞게끔 아예 문장구조를 다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사례11〉

원 문) 1992년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을 토대로 진군하던 대륙의 육중한 동력이 방향을 틀었다. 선부론이 분배론으로, 수출 중심이 내수 중심으로, 정부 중심이 민간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하는 것이다.

번역문) 1992年中國改革開放的“設計師”鄧小平曾提出“先富論”的政策,

而目前這個政策逐漸轉為“分配論”，以出口爲主轉爲以內需爲主，以政府爲中心逐漸轉爲以民間爲中心。

(1992년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이 '선부론'을 제시하였고, 현재 이 정책은 점차 '분배론'으로 바뀌고 있으며 수출 중심이 내수 중심으로, 정부 중심이 점차 민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엘사와 바스넷(Bielsa & Bassnet)이 제시하는 가독성요인에 중국의 논의를 종합하여 축소-삭제-추가-문장변경의 방식을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이 하위요소(방법)들은 기본적으로 번역뉴스에서 가독성이라는 개념적용의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편역이 중국어권 독자들이 번역뉴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문화적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정보를 요약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먼저 가독성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의 축소라고 할 수 있다. 가독성 공식을 적용한 연구<sup>48)</sup>들에서는 무엇보다 어휘의 음절수가 적고, 어휘가 짧아야 가독성이 좋아진다고 보는데, 이것이 뉴스번역에 시사하는 바는 원문의 정보량이 많을 경우 번역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번역자는 여러 개의 쉽고 짧은 문장으로 번역해야함을 의미한다. 번역뉴스에서 축소는 가독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면이나 화면의 제약으로 인해 독자들에게 관련 없는 정보를 줄여나가는 방식의 필요성으로 이야기 될 수도 있다.

## 5. 나오는 말

번역이라는 행위에 대한 초점이 '언어'에서 '문화'로 넘어오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 중심을 '원문'의 가치에 두고 '직역'과 '의역'의 논쟁에 멈추어 있다면, '뉴스는 과연 번역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맞닥뜨려야 할 것이다. 번역을 대할 때, 그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핵심적 기능을 이해하고 동일한 기능을 번역문에서 구현

48) 대표적으로 장민호, 위의 연구, p.8.

하려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가 번역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시야와 폭을 넓혀 주었다.

번역뉴스가 정보전달이라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번역과 편집, 번역사와 저널리스트 간의 상호작용적 시스템의 결과물이라고 파악한다면, 이는 하나의 제도화된 번역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제도적 현상은 번역학의 텍스트유형론이나, 기능주의적 접근, 이데올로기론의 어떠한 하나의 측면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결국 상호작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대만의 방송국<sup>49)</sup>들이 해외뉴스부서 종사자들을 뉴스번역자(新聞編譯)라 부르며 특화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뉴스번역과 관련된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번역뉴스 연구에 대한 방향을 이론적 수준에서 개념중심의 차원으로 좀 더 구체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한 결과이다. 국내 번역뉴스 연구가 2000년대 이후, 번역과정에서 뉴스문이 원문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형되는 것인가를 중심으로 뉴스문의 문장과 구조에 관심을 가졌다면, 최근 들어서는 매체와 환경의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통한 뉴스가치 선정의 문제로 연구가 집중되면서 번역뉴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부족한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번역뉴스에서 '가독성'이라는 구체적 개념을 제시하여, 번역뉴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로 연구가 확대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번역뉴스를 파악하게 하는 여러 이론들의 양상이 선언적인 측면이 많다면, 번역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실천방안으로 제시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독성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실제 뉴스번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가독성이라는 개념의 적용이 특정 텍스트의 기능에 한정짓기에는 너무 광범위할 수 있다는 문제와 가독성의 하위개념을 파악하는 것과 그 요소들의 연관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겠다.

49) 陈国华, 〈台湾电视国际新闻翻译之研究〉, 国立台湾科技大学硕士学位论文, 1998, 7쪽.

## 〈參考文獻〉

- 원용진, 《텔레비전 비평론》, 한울아카데미, 2005.
- 한국언론재단, 《한미 신문의 기사 형식과 내용 비교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7.
- 강수정, 〈방송뉴스 번역양상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17(1), 2013.
- 김한식, 〈보도문의 이해용이성에 관한 고찰〉,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9집, 2005.
- 박천일, 〈방송의 국제뉴스 선정과정과 통제 매커니즘 비교분석〉, 《언론과 사회》 7호, 1995.
- 송연석, 〈뉴스편역의 번역규범-텍스트 규범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2012.
- 유명우,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집(창간호), 2000.
- 이은숙, 〈문학번역 평가의 문제: 충실성과 가독성〉, 《통역과 번역》 10(2), 2008.
- 이은숙, 〈전문번역전략에 대한 연구-TV뉴스 번역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2011.
- 이준웅,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29호, 2002.
- 이혜균, 〈국가 간의 국제뉴스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석사논문, 2010.
- 장민호, 〈영화번역에서 텍스트 축소와 메시지의 변화〉, 《국제회의 통역과번역》 9(1), 2007.
- 정연일, 〈국내 외신보도 오보논란의 번역교육학적 함의〉,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8(1), 2004.
- 정호정, 〈번역학 전문학술지의 발달과 최근 연구동향〉, 《통역과 번역》 15권 1호, 2013
- 孟慧東, 〈淺談電視新聞語言〉, 《黑河學報》, 2012年3月.
- 宋靜, 〈文本功能與新聞英語翻譯中的歸化異化〉, 《湖南科技學院學報》, 30(9), 2009年 9月.
- 王東風, 〈一只看不見的手—論意識形態對翻譯實踐的操縱〉, 《中國翻譯》, 2003(5).
- 魏濤, 〈長話短說與短話長說—淺析英語電視新聞編譯〉, 《中國翻譯》 27(5), 2006.
- 朱剛, 〈詞語政治——一个賽義德后殖民个案分析〉, 《外國文學》, 2002(4).
- 劉其中, 《新聞翻譯教程》.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 呂宁, 〈新聞編譯中的“選擇”——以《參考消息》的一篇報道為例〉. 《新聞記者》. 2006(10).
- 張健, 〈英語新聞標題的漢譯〉, 中國翻譯, 1997(1).
- 張偉, 〈國際新聞編譯策略的實際應用〉. 《今日南國》. 133, 2009.
- 楊雪蓮, 〈傳播學視角下的外宣翻譯〉, 上海外國語大學博士學位論文, 2010.
- 蔣驍華, 〈意識形態對翻譯的影響: 闡發與新思考〉, 《中國翻譯》, 2003.
- 賈文波, 〈文本類型的翻譯策略導向——異化, 歸化討論后的思考〉, 《上海科技翻譯》, 2004年 第3期.

- 陳明瑤, 〈淺論英語新聞編譯加工〉. 《中國翻譯》. 22(5).
- 陳國華, 〈台灣電視國際新聞翻譯之研究〉, 國立台灣科技大學碩士學位論文, 1998.
- Christiane Nord, 정연일 주진국 옮김, 《번역행위의 목적성-기능주의 번역론의 관점》,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 Jeremy Munday, 정연일 남원준 옮김, 《번역학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 Katharina Reiss & Hans J. Vermeer, 정혜연 외 옮김, 《일반 통번역이론의 기초》,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 Mary Snell-Hornby, 허지운 외 옮김, 《번역학발견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
- Bielsa, Esperanca and Susan Bassnett, 《Translation in Global News》, NewYork: Routledge, 2009.

〈Abstract〉

## A study of Translated News from the Perspective of Readability

Kang, Su Ju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focus of texts moves from a source text to a target text, as the focus of translation studies has shifted from 'translation as a text' to 'translation as a cultural behavior.' Therefore, a source text is just one of various information sources for translators, not the overriding basis for translation. Today, the success of translation depends on the level of readers' acceptance of translated texts.

The perspective that a translated text should function properly in a target culture according to its purpose (skopos) is well established in studies on translation of news texts. By nature, 'readability' is a critical feature of news texts, which are designed to deliver information in written or oral forms to the public. At issue is that the abundant information of news texts in foreign media may have negatively affect readability for the audience, due to time (for broadcasting) or space (for newspaper) constraints, when

source texts are literally translated in target languages. Consequently, most media simply preserves the value of the news and changes a source text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udience. This is especially common in Chinese media.

This study suggests characteristics of changes from source texts for 'readability' in Chinese media, and explains translation in China using predictable theorie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various translation perspectives. In general, Chinese scholars employ functionalism while Korean scholars use an ideology approach in studies on translated news texts.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readability as a factor to changes of translated news texts, and explores how readability is achieved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and how it is related to journalistic factors in China.

Key Words: Chines News, News Translation, Translated article, Edited Translation, Readability

주제어: 중국뉴스, 방송번역, 번역뉴스, 편역, 가독성

이 논문은 2014년 7월 14일에 접수되어 2014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8월 15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